

“민주주의 축제 선거를 피·눈물로 일룩지게 했다”

■ 법원, 박주선·유태명 중형 선고 왜?

조직적 범죄 상급자에 책임 묻어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광주 동구불법선거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화장품 영업사원, 슈퍼마켓 주인, 주부 등 시민은 물론 구의원, 전 민주당 당직자, 동구청 산하기관 간부, 국회의원 보좌관, 현직 구청장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엄중했다.

도로 당내 경선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으며, 결국 박 의원의 당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봤다. 다시 말해 박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의 공동정범이며 불법 모바일 경선인단 모집과 각 동책 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의 성격에 맞고 있다는 것이다.

◇법정 진술보다 검찰 진술에 신빙성 뒤=재판부는 증인 또는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꾸준히 위증죄를 언급하며 검찰 진술을 반복하는 주요 피고인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도(48)씨는 법정에서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의 불법선거운동 사전 인지 및 암묵적 동의, 지시 등을 사실상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감압이나 회유가 없었으며, 자신의 핵심 측근이나 보좌관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경험법칙과 정황사실, 주요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 측은 조직을 동원하고 박 의원 측은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유 구청장과 박 의원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 등이 법정에서 진술을 반복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고했다는 핵심은 부인 안 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 스스로 시의원은 모바일 경선인단 5000명, 구의원은 2000명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를 구의원인 남모(여·56)씨가 자신의 수첩에 적어둔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이 발언을 “농담”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상급자에 무거운 책임=조직적 범죄의 경우 하급자가 직접 실행에 옮기고 상급자는 지시·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따라서 재판부는 선고 형량을 정하는데 상당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불법선거운동을 실행에 옮긴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와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도(48)씨는 각각 징역 2년6월, 박 의원의 보좌관이 모(46)씨는 징역 3년 등을, 박 의원과 유 구청장은 각각 1년과 2년을 구형하는 등 상급자보다 하급자에 책임을 더 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가 피와 눈물로 점철된 비극으로 전락했다”며 “조직적 범죄의 성격상 상급자가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나 묵인을 하지만 이익은 상급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상급자를 실행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4·11 총선 광주 동구 불법 선거운동 관련 1심 선고 내용

이름(나이)	직위	형량
박주선(63)	국회의원	징역 2년(국회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	징역 2년(법정구속)
이○○(46)	박주선 의원 보좌관	징역 3년(구속기소)
김○○(50)	민주당 광주시당 전 정책실장	징역 1년 6월(구속기소)
김○○(48)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징역 1년 6월, 추징금 500만원(구속기소)
박○○(53)	박주선 선거캠프 특보	징역 8월(구속기소)
조○○(65)	동구의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남○○(여·56)	동구의원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배○○(여·56)	동구 여성사랑회 지원2동 회장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조○○(61)	동책임자	징역 6월 350만원 추징(법정구속)
차○○(53)	동책임자	징역 6월 300만원 추징(법정구속)
강○○(여·58)	동책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00만원 추징
남○○(54)	동책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100만원 추징
최○○(58)	동책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50만원 추징
최○○(58)	동책임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300만원 추징
변○○(52)	동책임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신○○(여·52)	동책임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250만원 추징
최○○(54)	등 12명 전·현직 통장	벌금 300만원

※ 죄명 : 공직선거법 위반

■ 광주 동구 불법선거 수사·재판 일지

- ▲2월26일=계림1동 주민자치센터 꿈나무 도서관서 선관위 단속 중 전직 동장 조모씨 투신 사망
- ▲2월27일=동구선관위, 박주선 의원·유태명 동구청장 수사외의뢰
- ▲3월1일=조씨와 함께 있던 통장, 이 사건 관련 첫 구속
- ▲3월7일=광주지검, 유 구청장 소환·구청장실 압수수색
- ▲3월22일=박 의원, 민주당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 ▲3월23일=유 구청장 구속 ▲3월26일=박 의원 보좌관 구속
- ▲4월3일=유 구청장 보석 석방
- ▲4월11일=박 의원 3선 성공 ▲4월21일=검찰, 박 의원 소환
- ▲5월2일=검찰, 박 의원 기소(이 사건 관련 12명 구속 기소, 17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
- ▲6월21일=검찰, 박 의원 징역 1년·유 구청장 징역 2년 구형
- ▲6월27일 = 광주지법, 1심서 박 의원·유 구청장에 각각 징역 2년 선고

‘3번 구속·3번 무죄’ 박주선 4번째 정치 시련

구속 피할 수 있을지 주목

‘3번 구속, 3번 무죄’의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4번째 구속 위기에 몰리며 또 한번 정치적 시련을 겪게 됐다. 법원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패지를 의치고 있어서 박 의원에게 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 비회기 중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구속 가능성은 남아있다.

박 의원은 1999년 오토비 의혹, 2000년 나라종교 사건으로 각각 구속됐다.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국내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썼다.

특히, 박 의원은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오직 두루 거친 검사 출신이어서 검찰과의 악연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1심 재판을 마친 뒤 항소 의사를 밝혀 4번째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상급심 판정이 주목되고 있으나 당장 4번째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27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실형 선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체포동의요구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오버’라며 ‘박 의원이 그동안의 시련을 견뎌왔듯이 이번에도 꿋꿋이 이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野, 박주선 체포동의서 처리 관심

광주지법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63·광주 동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여야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재판부가 요청한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서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가 앞다투어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기존의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하는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회기 동안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6대 해신안을 발표했다. 국회법에 따

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다.

민주통합당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불체포 특권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체포동의 요청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처리되는 것으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여야의 내놓은 개혁안에 적용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룬다면 여야의 국회 개혁안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국민

의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주선 의원이 무소속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사법부로부터 체포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분회의 처리를 논의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당내 논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도 “당 차원에서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 논평이나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박 의원이 이번 문제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기 확정판결 땀 대선과 함께 재·보선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이 이날 1심 판결에서 각각 의원직과 청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향후 재·보선 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대법원까지의 확정 판결이 남아있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의원직과 청장직 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심의 형량이 중형인 점을 감안하면, 2심에서 무죄가 아닌 감형을 받더라도 공직선거법 상 위를 상실하게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1심 판결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광주 동구에서는 국

회의원 재선거와 구청장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재·보궐선거 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오는 11월19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 이후에 이뤄질 경우에는 내년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한편, 27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박주선 전법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할 경우 전남도지사 보궐선거도 오는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이런 상황에 政治는 조용...

환상제주 여행시즌 BIG HIT! 제주여행

3년 연속 “올해의 항공사상” 수상!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하는 짜릿한 제주여행~

신비의 섬 “제주 탐방” 투어

특전1. 특식(전복해물전골+전복화+우동구이) 특전2. 제주방문 기념사진 1매

특정기간 : 2012.03.01 ~ 2012.07.19 *버스패키지 계약금 50,000원

특급호텔과 함께~ 미리 떠나는 휴가 2박3일

호텔명	7/15	7/16~7/17	7/18~7/19	7/20
서귀포코랄호텔	대인 349,000	339,000	355,000	395,000
	소인 159,000	155,000	165,000	175,000

하얏트호텔제주

출발일 7/15~7/18

대인 459,000

소인 159,000

사인빌리티서리리조트 (기간 7/12까지)

출발일	월/화	수/목/일	금
대인	309,000	319,000	379,000
소인	159,000	169,000	179,000

■ 렌터카 P.K.G (서귀포호텔 / 하얏트호텔 / 사인빌리티서리리조트) - 포항사항 : 항공료, 숙박료, 조식 2회, 렌터카 48시간(2인기준) - 불포항사항 : 유류할증료, 차차보합, 개인경비

제주 자유 여행 / 항공 + 펜션 + 렌터카48시간 (주중출발) 3일

8인기준 175,000원부터 6인기준 180,000원부터

4인기준 185,000원부터 2인기준 200,000원부터

제주도 골프투어 - 항공 골프 패키지 (월, 화, 수 출발 / 목요일 출발 1인 1만원 추가 / 4인 이상 1조 출발)

1박2일

크라운오더블레스 + 스카이힐 [숙소] 네이버후드/스카이힐 **₩329,000~** 블랙스톤오세인트포 + 라온 [숙소] 라온골프빌 **₩419,000~**

■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36홀 + 골프코스 호텔 1박 1식, 식사, 유류할증료 별도 * 제주 모든 골프장 예약가능합니다. 견적 문의 주십시오!

여행사 파트너 모집 광주/전남 T.062-675-0064 담당: 공지혜 대리

환상제주 여행문의

하이센스여행사 350-6222	이유여행사 374-1881	메이투어 070-7093-0555	한별투어 956-0045
첨단/투어디자인 974-3050	무등파크여행사 228-7470	동구/다니엘여행사 227-7422	